

지역경제 밑바탕 탄탄하게... 각 분야에서 성과

김제시가 민선8기 출범 후 '활력있는 민생경제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일자리, 청년, 소상공인, 기업유치 등 경제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저성장, 지역소멸위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성주 시장의 발 빠른 대처로 '전북권 4대 도시'로 옹호하기 위한 지역경제의 밑바탕을 탄탄히 다진 결과 각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김제시의 일자리 창출과 전략적 기업유치 분야를 살펴 보고자 한다.

▲지역 고용지표 청신호, 일자리 양과 질의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 아래 산업별,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에 집중해 결과 2022년 하반기 고용률은 전년대비 0.5%가 상승한 65%, 취업자 또한 1,000명이 증가한 4만 5,800명을 기록했다.

고용률을 견인한 주요사업 성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 선정을 통한 청년 100여명의 일자리 창출 △시 전체 인구의 38%에 해당하는 신중년 세대의 일자리허브 역할을 수행 중인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5년 연속 공모선정으로 신중년의 인생 2막을 지원하고 있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력 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 선정 등이 있다.

이러한 김제시의 일자리를 향한 적극적인 노력은 매년 전북도에서 주관하는 시·군 일자리정책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창업자원을 통한 청년친화생태 조성

지역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성장동력인 청년인재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청년창업지원에 집중했다.

원호초 청년창업플랫폼인 김제청년공간 E :IA(이디)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청년 커뮤니티 모이다 △청년문화지원 △청년공간 서포터즈 등 청년과의 소통 창구를 활발히 운영해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청년창업가의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지역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를 확보해 △아이리(Air-Re), △아이플러스(Air-Res+)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힌트(HINT) △톡톡(TOKTOK) 추진을 통해 총 92명의 청년창업가를 육성 중에 있어 청년 일자리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친화 맞춤형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민선 8기에 들어서며 지역경제에 활력이 불고 있다.

먼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김제사랑상품권은 지난 5월 기존의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의 불편함을 보완 삼삼페이 등목 및 지역택시요금 결제가 가능한 김제사랑체크카드를 출시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며 지역소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확대운영 중인 5일장은 인근도로 통제와 다채로운 물품 판매를 통해 시골정서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다는 평이 주를 이루며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명품 5일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인정을 위한 지원제도 확대 운영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 어려운 서민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시설의 노후화로 폐업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경영지원을 위



해 예산을 전년 대비 20% 확대 편성한 18억원을 확보, 지역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사업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확대 지원함으로써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자금 부담 완화를 계기로 마련했다.

특히, 창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에게 임차료와 정비·홍보비 등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창업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사업이 올해 첫 시행 중에 있어 지역업자의 안정적인 창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우수자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공급... 탄소중립시대 발맞춤

김제시는 탄소중립을 통한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융합형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등)을 통해 관내 주택과 건물 등에 태양광, 태양열 및 지열 등 총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653개소, 올해 510개소의 신재생 에너지설비를 지원,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쾌적한 환경 제공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높게 치솟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으로 인해 에너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관내 저소득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비우려 지원사업, 연탄부품 지원사업, 난방유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전략적 투자유치로 기업도시로서의 전환점 맞아,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



조성 타력

김제시는 전략적·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12개 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기업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김제시 최초로 대기업인 (주)두산 유치가 성공한 데 이어, 김제 소재 농기계 생산기업인 (유)웅진기계와 산업기계·첨단부품 전문 대기업인 IS엔트(주) 신규 합작법인 랜드솔루션(주) 유치를 비롯해 지평선산업단지 내에 총 12개 기업(35만 6,081㎡)으로부터 4,295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한편, 564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부족한 산업용지 마련을 위해 김제 자유무역지역내 총사업비 392억원을 투입해 표준공장 2개동(연면적 1만 6,570㎡)을 세워 우수 의무·수출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평선산업단지(1215,777㎡)에 사업비 298억원을 투입해 지상 5층 규모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하여 △기초창업 및 기업 유망주요인 창업성장센터 △일자리 연계 및 교육을 담당할 일자리산업진흥센터를 입주시켜 특장기계·전기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전방위로 구축할 전략이다.

또한 부족한 산업용지 마련을 위해 상동동 일원에 2027년까지 89만5,000㎡ 규모로 지평선 제2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신 특장기업의 기반을 마련해 경제성장과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6,322㎡ 규모의 '백구 제2 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해 특장차산업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장차인증지원센터를 2017년 개소한 이후 인증업무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57억원을 투입해 안전평가동을 증축하여 검사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특장차 제작기업을 위한 인증교육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 사업'이 공모에 선정, 특장차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장비 구축과 관련 기술 전문화·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178억원(지방비 포함 총 207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제2 특장차단지내 특장차기업의 제품과 공정 에로사항을 해결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특장차종합지원센터', 특장차 튜닝검사 및 실증용 '특장차 검사지원센터' 등 각종 전문 지원기관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특장차 산업 발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후 농공단지 정비를 통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입주업체 경쟁력 제고

원촌농공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사업에 이어 올해 4월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사업이 선정돼 나후된 농공단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사업은 교통, 안전, 그린인프라 총 3개 부문에 27억 원을 투자하여 농공단지내 근로자 및 교통약자 등을 위한 주차장 버스쉼터, 스마트폴 등의 설치로 근로자·주민의 편의제고와 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 사업은 사업비 22억3,000만원으로 노후 농공단지의 EMS구축 등의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을 도입한 설비를 구축, 총 7%의 에너지를 절감해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고, 친환경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전북도와 연계해 추진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 법무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등 외국인 인제 100명을 관내 기업에 취업 연계해 기업의 고용난 해소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가사·임차료 지원사업,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중소기업 이차보전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김제=곽도태 기자



맞춤형 일자리 정책 집중 작년 하반기 고용률 65% 전년보다 0.5% 상승

12개 기업 투자유치 성공 지평선 제2일반산업단 '활기'

고물가 등 글로벌 경제위기 속 전년보다 32.2% 수출성장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 기술도입사업 선정 나후 농공단지에 '활력'

▶정성주 시장의 포부



기업유치 늘리며 새도약 발판 거듭 변화의 씨앗 뿌릴 것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설계하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시민의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고자 도약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우수·유망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해 기업 유치를 늘려나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성과와 변화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담대한 의지로 지속가능한 김제의 내일을 위해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희망을 키워나간다"고 약속했다.